

『서행록(西行錄)』 소재(所載) 한시의 현황과 특징

김미선*

차 례

1. 머리말
2.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
3. 『서행록』 소재 한시의 특징
 - 1) 여정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
 - 2) 사람들과의 교유와 이별
 - 3) 여행길의 풍경과 유람
 - 4)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
4. 맺음말

| 국문초록 |

『서행록』은 조선후기 3대(代)의 기행일기로, 저자는 전남 고흥에 거주했던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이다. 『서행록』 속에는 1744년부터 1839년까지 약 100년간 3대의 다양한 여행이 담겨 있으며, 296수에 이르는 많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 『서행록』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송정악은 17차례, 송지행은 9차례, 송석년은 10차례의 여행을 일기로 기록하였다. 송정악의 일기 속에는 7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40수는 송정악의 한시, 34수는 타인의 한시였다. 송지행의 일기 속에는 88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65수는 송지행의 한시, 22수는 타인의 한시, 1수는 공동 창작 한시였다. 송석년의 일기 속에는 13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55수는 송석년의 한시, 79수는 타인의 한시였다. 저자들은 본인의 한시뿐만 아니라 여행 중 보게 된 한시, 일행의 한시 등도 함께 일기에 수록하였다.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서행록』 소재 한시는 여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정(旅程)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愁心)이 담겨 있다. 둘째, 여행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유와 이별이 담겨 있다. 셋째, 여행길에서 보게 된 풍경에 대한 묘사와 유람(遊覽)이 담겨 있다. 넷째, 여행의 목적인 선조(先祖) 현양(顯揚)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한시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서행록』을 통해 조선후기 여행객의 한시 창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기행시를 발굴할 수 있다.

핵심어 : 『서행록』, 기행일기, 한시, 기행시

1. 머리말

『서행록』은 조선후기 여산 송씨(礪山 宋氏) 3대의 기행일기이다. 전라남도 고흥에 거주했던 송정악(宋廷岳, 1697~1775)은 평생에 걸쳐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났으며 이를 일기로 남겼다. 아들인 송지행(宋志行, 1741~1802)도 기행일기를 남겼고, 손자인 송석년(宋錫年, 1778~1842)은 송정악과 송지행의 일기를 『서행록』으로 편차하였다. 송석년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기행일기를 남겼으며, 이는 후손이 다시 편차하였다. 그리하여 권1에 송정악, 권2에 송지행, 권3에 송석년의 기행일기를 수록한 필사본 『서행록』이 완성되어 현전하고 있다.

『서행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미선에 의해 이루어져 2019년 「조선 후기 기행일기 『서행록』의 편찬 배경과 구성」이 발표되었다.¹⁾ 이 논문에서는 편찬 배경으로서 위선(爲先) 대상과 『서행록』의 저자, 위선(爲先)의 필요성을 살폈고, 『서행록』의 체제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같은 해에 박미선은 『서행록』을 바탕으로 18세기 묘비 건립 활동을 연구한 「18세기 향반가의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²⁾ 이후 『서행록』에

1) 박미선, 「조선 후기 紀行日記 『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2019, 121~143쪽.

2) 박미선, 「18세기 鄉班家의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

대한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2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서행록』 번역을 완료하였고³⁾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서행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⁴⁾

『서행록』 속에는 1744년부터 1839년까지 약 100년간 3대의 다양한 여행이 담겨 있으며, 일기 속에는 여행 중 창작한 한시, 제문 등 문학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한시는 296수라는 많은 수량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여행 중에 짓고 향유한 다양한 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일기의 특성상 산문 서술과 한시가 교차하여, 산문 서술을 통해 조선 후기 여행 중 한시 창작 상황도 볼 수 있다. 또 기행일기에 수록된 한시이므로 기행시가 많아 다양한 기행시를 발굴할 수 있다. 형식이 자유로운 일기 속에는 문학작품이 삽입된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한시가 수록된 것은 흔하지 않다.

296수라는 많은 한시를 수록한 것은 『서행록』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서행록』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서행록』 속 한시에 집중한 첫 연구로서,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을 살피고, 특징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한시를 수록한 『서행록』의 가치를 밝히고, 『서행록』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173~211쪽.

- 3) 송정악 저, 나상필 외 역, 『서행록』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 송정악·송지행 저, 조일형 외 역, 『서행록』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1 ; 송지행·송석년 저, 김성희·문희숙 역, 『서행록』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본 논문에서는 이 번역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수정을 하였다. 이외의 2008년 후손 송관중의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나(송정악·송지행·송석년 저, 송관중 역, 『서행록』, 원진문화사, 2008) 누락된 부분이 있고 원문 텍스트가 없으며,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jnu.ac.kr/>)’의 ‘일기자료’ 하위에 『서행록』에 대한 간략한 해제와 원전 이미지 등이 탑재되어 있다.
- 4) 2022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호남문화원 심층연구 학술대회-서행록을 통해 본 여산 송씨 3대의 선양 정신과 학술적 의의”에서는 「조선 후기 호남 양반의 서행(西行) 경로와 여행 풍경-『서행록』에 나타난 여산 송문(宋門) 3대(代)의 여정을 중심으로」(박미선), 「송정악(宋廷岳, 1697~1775)의 송대립과 송침 묘비 건립 연구」(김민규), 「『서행록』의 여행 글쓰기와 문학교육적 의미」(김미선)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

『서행록』은 3대의 기행일기로, 3명의 저자가 각각 1차례의 여행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송정악은 17차례, 송지행은 9차례, 송석년은 10차례의 여행을 기록하였다. 본 장에서는 각 저자별 일기 기간, 수록 한시 수량 등 한시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먼저 송정악은 1744년 4월 20일부터 1769년 7월 3일까지 17차례의 여행을 일기로 남겼다. 이중 9차례 일기에 최소 1수에서 최대 31수에 이르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 74수의 한시 중 송정악의 한시는 40수, 타인의 한시는 34수이다. 송정악 일기 소재 한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송정악 기행일기 소재 한시 현황

순번	일기 기간	한시 수량	한시 작가 구분	
			송정악	타인
1	1744년 4월 20일~7월 21일	31	9	22
2	1745년 9월 3일~10월 14일	4		4
3	1746년 12월 10일~1747년 1월 28일			
4	1748년 10월 11일~12월 21일	3	3	
5	1749년 2월 회일(晦日)~7월 19일	23	19	4
6	1751년 10월 15일~11월 28일			
7	1752년 4월 13일~9월 4일	1	1	
8	1754년 10월 13일~12월 13일			
9	1755년 6월 9일~8월 1일			
10	1757년 10월 15일~12월 28일	2	1	1
11	1758년 6월 3일~1759년 3월 20일	3	2	1
12	1759년 4월 25일~5월 14일	6	4	2
13	1761년 12월 13일~1762년 4월 12일			
14	1763년 1월 19일~1월 25일	1	1	
15	1763년 8월 15일~9월 9일			

순번	일기 기간	한시 수량	한시 작가 구분	
			송정악	타인
16	1768년 1월 15일~6월 14일			
17	1769년 5월 10일~7월 3일			
합계		74	40	34

송정악은 임병양란 때 적군과 싸우다 순절한 선조인 송대립(宋大立, 1550~1597)과 송침(宋諶, 1590~1637) 부자(父子)를 현양하기 위한 일을 보러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났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며 송대립과 송침 부자의 사적을 기록한 『충효록(忠孝錄)』에 실을 글을 받고, 『충효록』의 편찬, 교정, 간행, 배부를 위한 일을 보았다. 송정악은 송지행, 송석년에 비해 일기에 적은 수의 한시를 수록하였지만, 첫 번째 일기에는 31수에 이르는 많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때 송정악은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에게 글을 받기 위해 경기도 용인의 한천을 방문하였고, 그곳에 머무르며 공부하면서 글 써주기를 기다렸다. 머무르는 동안 송정악은 이재가 한시를 지으면 일기에 수록하였고, 자신도 차운을 하였다. 첫 번째 일기에 수록된 타인의 한시 22수는 모두 이재의 한시이다.

다섯 번째 일기에는 23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송대립과 송침의 묘비 건립을 위한 석재를 사러 송정악은 서울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서울에 머무르다가 송침이 적과 싸우다 순절한 함경도 안변을 찾아가게 되었다. 23수의 한시 중 16수는 바로 안변을 다녀오는 기간인 1749년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일기에 실린 것이다. 격구정(擊毬亭)에 있는 한시를 옮겨 적기도 하고,⁵⁾ 밤에 꿈을 꾸 후 객사 현판에 있었던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한시에 차운하여 짓기도 하며,⁶⁾ 머물던 집 이웃 아이에게 운을 불러 한시를 짓게 하면서 자신도 짓기도 하였다.⁷⁾

5) 1749년 4월 17일.

6) 1749년 5월 4일.

7) 1749년 5월 9일.

74수의 한시를 시체(詩體)별로 분류하면 오언절구 18수, 오언율시 8수, 칠언절구 33수, 칠언율시 15수로 모두 근체시이다. 타인의 한시는 도암 이재의 시가 24수로 가장 많고,⁸⁾ 1758년 9월 21일에는 생일에 초대해 준 석산(石山)의 박사간(朴司諫) 한시가 1수 수록되어 있다. 그 외 타인의 한시는 여행지의 현관 등에서 보게 된 한시를 일기에 수록한 것으로, 송시열(宋時烈),⁹⁾ 오언주(吳彦胄),¹⁰⁾ 서종옥(徐宗玉),¹¹⁾ 정몽주(鄭夢周),¹²⁾ 이순신(李舜臣),¹³⁾ 정익하(鄭益河)¹⁴⁾의 시가 이에 해당한다.

송지행은 1768년 1월 15일부터 1800년 4월 19일까지 9차례의 여행을 일기로 남겼다. 송정악의 17차례 일기 중 8차례에 한시가 수록되지 않은 반면, 송지행의 9차례 일기에는 모두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 88수의 한시 중 송지행의 한시는 65수, 타인의 한시는 22수이며, 공동으로 지은 한시가 1수 있다. 송지행 일기 소재 한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송지행 기행일기 소재 한시 현황

순번	일기 기간	한시 수량	한시 작가 구분		
			송지행	타인	공동
1	1768년 1월 15일~4월 18일	4	4		
2	1773년 2월 회일(晦日)~4월 6일	31	17	13	1
3	1791년 2월 26일~8월 23일	3	3		
4	1791년 11월 13일~1792년 4월 15일	13	9	4	
5	1792년 9월 15일~1793년 2월 3일	17	17		

8) 22수는 1744년의 일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1수는 1745년 일기의 말미, 1수는 1757년 12월 2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1745년 일기의 말미에는 이재가 차운한 한시의 원운인 홍자용(洪子容)의 한시도 1수 수록되어 있다.

9) 1745년 10월 2일, 1745년 10월 3일.

10) 1749년 4월 17일.

11) 1749년 4월 17일.

12) 1749년 5월 3일, 1749년 5월 4일.

13) 1759년 5월 2일.

14) 1759년 5월 2일.

순번	일기 기간	한시 수량	한시 작가 구분		
			송지행	타인	공동
6	1794년 1월 16일~5월 2일	13	8	5	
7	1796년 11월 20일~1797년 2월 22일	3	3		
8	1798년 9월 2일~1799년 2월 20일	2	2		
9	1800년 3월 2일~4월 19일	2	2		
합계		88	65	22	1

송지행은 여행 중 입향조 송간(宋侃)의 증시(贈諡) 관련 일을 주로 보았으며 과거시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모두 주된 여행지는 서울이었지만, 송정악은 경상도 한산도의 제송당,¹⁵⁾ 전라도 여수의 충민사를 여행하기도 하고,¹⁶⁾ 송석년은 충청도 회덕의 오촌,¹⁷⁾ 전라도 전주,¹⁸⁾ 경상도 남해의 충렬사¹⁹⁾만 여행하고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송지행의 9차례 여행은 모두 서울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송지행은 서울에 머무르다가 2차례, 각 한 달 가량씩의 유람을 다녀오게 되고, 이때 가장 많은 한시를 수록하게 된다.

두 번째 일기에 가장 많은 31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1773년 3월 23일부터 윤3월 23일까지 송지행은 금강산 유람을 다녀오게 된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금강산 유람 후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31수의 한시는 모두 이 기간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 일기에는 두 번째로 많은 17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때에는 1792년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송악산, 평양, 묘향산 등 북쪽 지역을 유람하게 된다. 금강산 유람 때처럼 서울에서 출발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17수의 한시 모두 이 기간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88수의 한시를 시체별로 분류하면 오언절구 18수, 오언율시 13수, 칠언절구

15) <표 1>의 12번 일기.

16) <표 1>의 14번 일기.

17) <표 3>의 1번, 2번 일기.

18) <표 3>의 5번 일기.

19) <표 3>의 10번 일기.

37수, 칠언율시 20수로, 송정악 일기와 마찬가지로 모두 근체시이다. 타인의 한시 22수 중 13수는 두 번째 일기에 수록된 것으로, 금강산 유람 때 사람들과 수창하며 지은 한시가 많다. 특히 1773년 윤3월 4일에는 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7언율시 한 수를 짓기도 한다. 네 번째 일기에 수록된 타인의 한시 4수는 모두 동행인 화옥(華玉)²⁰⁾의 한시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기에 수록된 타인의 한시 5수 중 1수는 화옥의 한시, 4수는 서울에서 성을 따라 꽃구경을 하고,²¹⁾ 뇌암(磊巖)에 올라 노닐 때²²⁾에 수창한 일행들의 한시이다.

송석년은 1821년 2월 20일부터 1839년 3월 25일까지 10차례의 여행을 일기로 남겼다. 세 명의 저자 중 가장 많은 13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송석년의 한시는 55수, 타인의 한시는 79수이다. 송석년 일기 소재 한시의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송석년 기행일기 소재 한시 현황

순번	일기 기간	한시 수량	한시 작가 구분	
			송석년	타인
1	1821년 2월 20일~4월 10일	12	6	6
2	1821년 11월 19일~12월 20일	1	1	
3	1823년 3월 21일~4월 28일	7	4	3
4	1823년 8월 회일(晦日)~10월 6일	20	7	13
5	1827년 9월 25일~10월 19일			
6	1828년 4월 4일~5월 30일	38	10	28
7	1828년 9월 11일~11월 3일	7	4	3
8	1831년 10월 1일~10월 26일	23	10	13
9	1832년 윤9월 22일~11월 10일	23	10	13
10	1839년 3월 12일~3월 25일	3	3	
합계		134	55	79

20) 화옥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 2절에서 설명을 하였다.

21) 1794년 3월 17일, 1수.

22) 1794년 4월 3일, 3수.

송석년의 여행 기간은 각 2개월 이내로, 최대 9개월 반 가량인 송정악,²³⁾ 최대 6개월 가량인 송지행²⁴⁾에 비해 기간이 짧은 편이다. 하지만 수록 한시는 송정악 74수, 송지행 88수보다 많은 134수이다. 134수의 한시를 시체별로 분류하면 오언절구 26수, 오언율시 4수, 칠언절구 103수, 칠언율시 1수로, 절구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송석년은 입향조 송간의 행록인 『서재실기(西齋實記)』 간행과 배포, 동학서원에 송간 배향, 족보 간행 등 문중 일을 위해 여행을 떠나며, 문중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었다. 예컨대 첫 번째 일기에 기록된 1821년 2월의 여행에는 이찬(而贊), 윤익(允益)이 동행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여행길에 수창을 하며 한시를 지어, 이 첫 번째 일기에는 이찬의 한시 2수, 윤익의 한시 3수가 수록되어 있다.²⁵⁾ 송석년의 일기에는 본인의 한시보다 타인의 한시가 더 많은데, 여행 중 동행과 수창하며 한시를 지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동행과 수창하고 이를 일기에 수록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한시가 많으며, 여행 중 즉흥적으로 수창을 하면서 율시보다 짧은 절구로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행록』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3대의 기행일기로, 세 명의 저자 모두 일기에 한시를 수록하고 있다. 송정악은 한천에 머물 때 이재의 한시를 다수 수록하였고, 본인이 차운하기도 하였다. 또 선조 송침의 전장지인 안변에 다녀올 때 많은 한시를 수록하였다. 송지행은 서울에 머무르다가 금강산, 묘향산에 각각 한 달 정도씩 유람을 다녀왔으며, 이때 가장 많은 한시를 수록하였다. 역사적 장소 방문, 명산 유람과 같은 특별한 여정이 있게 될 때 한시를 다수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송석년 일기에는 송정악, 송지행처럼 특별한 여정이 없었다. 하지만 일행들과 여행길에서 지속적으로 수창시를 짓고 한시 전체를 일기에 수록하여, 여러 사람들의 한시를 볼 수 있게 하였다.

23) <표 1>의 11번 일기.

24) <표 2>의 3번 일기.

25) 1821년 3월 6일, 1821년 3월 8일.

3. 『서행록』 소재 한시의 특징

『서행록』 소재 한시는 전체 296수로, 권1에 74수, 권2에 88수, 권3에 134수가 수록되어 있다. 시체별로 보면 오언절구 62수, 오언율시 25수, 칠언절구 173수, 칠언율시 36수로 모두 근체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기의 저자인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의 한시 외에 여행 중 보게 된 한시, 여행 중 만난 사람이나 여행에 함께 한 일행의 한시도 수록되어 있다.

송정악은 스승인 이재의 한시를 24수나 수록하여, 스승의 한시를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고 싶어 하였고, 송지행은 금강산과 묘향산을 유람할 때 많은 한시를 남겼으며, 송석년은 여러 동행과 여행길에서 수장한 한시를 다수 수록하였다. 이렇게 저자별로 수록한 한시에 차이점이 있어, 각 저자별 한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한시는 여행 중에 작성된 것으로, 여정의 고난, 여행 중의 교유, 여행길의 풍경, 여행의 목적 등 여행 관련 내용이 핵심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행시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면, 『서행록』 소재 한시의 특징을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일기의 저자인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의 한시를 중심으로, 내용적 특징을 살펴도록 할 것이다.

1) 여정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은 모두 여행을 일기로 기록했고, 『서행록』 속 한시는 바로 여행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서울 등으로 여러 차례 길을 떠나야 했던 이들의 여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송정악은 겨울에는 언 강을 위태롭게 건넜으며,²⁶⁾ 여름에 강을 건너다 불어난 물에 죽을 뻔하였고,²⁷⁾ 낙마를 한 것도 여러 차례였다.²⁸⁾ 이러한 큰 위기까지는 아니더

26) 1751년 11월 7일.

27) 1758년 6월 24일.

28) 1754년 10월 26일, 1758년 6월 17일, 1768년 2월 1일, 1768년 2월 5일.

라도 더위, 추위, 눈, 비 등 여행길에서 저자들은 여러 고난을 겪었다. 여정의 고난은 산문으로 자세히 서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시 속에 집약되어 감정과 함께 표출되기도 한다.

夜宿龍門寺 밤에 용문사에서 묵으니
 山深俗語稀 산이 깊어 세속의 말소리도 드물구나
 響林寒雨過 숲에 울려 퍼지는 차가운 빗소리에
 行邁苦遲遲 가는 길 더디고 더더 괴롭구나²⁹⁾

위는 1748년 10월 13일 일기에 수록된 송정악의 한시이다. 1748년 10월 11일 고흥에서 출발한 송정악은 10월 13일 순천의 절에 묵으며 동행할 사람들을 기다렸다. 동행할 사람들이 도착하였고, 송정악은 “밤에 비가 오니 심란한 마음에 절구 한 수를 읊었다.[夜雨心亂吟一絕]”라고 서술한 후 위의 한시를 수록하였다. 밤에 숲에 울려 퍼지는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하는 송정악의 심정을 볼 수가 있다. 비는 사람에게 감흥을 일으켜 한시를 짓기 용이하게 하는데, 길을 떠나야하는 여행객에게는 고난을 가져오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수심에 잠긴 저자의 심정이 드러난 한시를 송석년의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晝伴三人夜獨留 낮엔 세 사람이 동행하다 밤에 혼자 남으니
 門前惟有水聲悠 문 앞에는 오직 물소리만 그윽하게 들리네
 旅窓永日兼時雨 나그네 묵는 창가에 온종일 단비가 내리니
 添我行中萬端愁 내 가는 길에 온갖 수심이 더해지는 듯하네³⁰⁾

1831년 10월 2일 일기에 수록된 한시이다. 이날은 새벽에 비가 시작되어 종일 내린 날로, “새벽 무렵 비가 시작되어 종일 그치지 않았다. 동행은 오지 않

29) 宋廷岳, 『西行錄』 卷1, 1748년 10월 13일.

30) 宋錫年, 『西行錄』 卷3, 1831년 10월 2일.

고 혼자 황량한 객점에 남아있자니,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에 절구한 수를 읊었다.[曉頭雨始, 終日不止. 同行不來, 獨留荒店, 其苦難耐. 仍吟一絕.]”라고 그날의 일을 요약적으로 기록한 후 위의 한시를 수록하였다. 농사에 있어서 단비[時雨]는 매우 반가운 것이지만 여행객에게 비는 여정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이로 인해 근심하는 저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송석년은 1823년 3월 29일 밤에도 한시를 읊으면서 “어찌하여 밤 깊도록 비는 내리는지 / 객지살이 나의 수심 더해만 가네[如何深夜雨, 添我客中愁.]”라고 마무리하여, 비슷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에는 눈과 추위가 여행길을 방해하는 고난이 된다. 송지행은 입향조 송간의 증시(贈諡) 관련 일을 보기 위해 겨울인 1791년 11월 13일 서울로 길을 떠났고, 11월 25일 과천에 이르러 아래의 한시 한 수를 읊고 일기에 수록하였다.

一年三渡漢津鰲 한 해에 세 번이나 한강 나루 건너는데
幸有聯鞭爾我雙 다행히 채찍 나란히 하며 너와 나 둘이구나
背後南鄉雲隔海 등 뒤의 남쪽 고향은 구름이 바다에 가로막히고
眼前北岳雪封松 눈앞의 북쪽 산은 눈이 소나무를 덮었네
晝行每畏寒侵骨 낮에 갈 때면 추위가 뼈에 사무치는 것이 매번 두렵고
夜宿長愁雪入窓 밤에 잘 때면 눈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이 늘 근심이네
屈指前程知不遠 앞길 노정을 헤아려 보건대 멀지 않았으니
王城只隔露梁江 왕성은 다만 노량진 강물에 막혀 있구나³¹⁾

송지행은 1791년 2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에 다녀왔었고, 일기도 남아 있다. 약 6개월간의 긴 여행을 하였는데 3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서울로 가게 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구에서 한 해 세 번이나 한강 나루를 건넌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5~6구에서 낮에 길을 갈 때 추위가 두렵고 밤에 잘 때 눈을 근심한다고 하여, 짧은 시구를 통해 겨울 여정의 고난과 저자의 마음

31) 宋志行, 『西行錄』 卷2, 1791年 11月 25日.

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다. 송지행은 1796년 11월 29일 서울로 가다가 전주 만마동에 이르렀을 때도 “눈을 밟고 겨우 삼백 리 길을 왔지만 / 얼음 밟으며 반 천 리 여정 어찌 가려나[踏雪纔行三百里, 踐氷那到半千程.]”라고 읊어, 눈과 얼음을 밟는 겨울 여정의 고난과 이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여정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을 담은 한시는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³²⁾ 선조를 현양하고 가문을 위한다는 큰 목적 아래 이루어진 여행이지만, 먼 길을 떠나고 오랜 기간 타지에서 머물러야 했던 저자들의 힘든 상황과 여행객으로서의 고달픈 심정이 한시에 담겨 있는 것이다.

2) 사람들과의 교류와 이별

사람들은 여행 중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도 여행 중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글 부탁 등 일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따뜻한 인정으로 대접을 받기도 한다. 또 여행길에 인근의 친척들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다. 이들은 호의적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을 담은 한시를 읊기도 하고,³³⁾ 반대로 냉정한 사람에 대한 속상함을 한시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暮到村修德 저물녘 수덕 마을에 도착하였는데

主人最不仁 주인은 가장 인정 없는 사람이네

一里皆揮却 온 마을이 다 물리쳐 쫓아내니

應少會佳賓 응당 좋은 손님이 적게 모이겠네³⁴⁾

32) 위에서 인용한 한시 외에도 1748년 12월 3일, 1749년 4월 17일, 1749년 5월 4일, 1749년 5월 9일, 1749년 6월 7일, 1749년 6월 30일, 1749년 7월 5일, 1758년 7월 11일, (이상 송정악) 1791년 6월 3일, 1791년 6월 15일, 1791년 11월 24일, (이상 송지행) 1823년 9월 10일, 1823년 10월 1일, 1831년 10월 3일, 1831년 10월 6일(이상 송석년) 등의 일기에 수록된 한시에서 이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3) 1749년 4월 25일, 1758년 9월 21일, 1773년 3월 28일, 1798년 12월 15일, 1823년 4월 8일, 1839년 3월 15일 등.

34) 宋錫年, 『西行錄』 卷3, 1839年 3月 12日.

위는 송석년의 한시로 1839년 3월 12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경상도 남해에 있는 충렬사에 가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 송석년은 이날 출발하여 저물녘에 순천 수덕 마을의 정생(丁生) 집에 이르렀다. 이때 정생은 출타 중인 상황이었고, 집안 사람이 송석년 일행을 물리치고 집에 들이지 않아 위와 같이 한시를 지은 것이다. 결국 안채에서 다시 불러 그 집에서 유숙하지만, 쫓겨나올 때 지은 한시를 일기에 수록하였고, 한시 속에는 당시의 서운한 심정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일행과는 긴 여행길을 함께 하게 된다. 고락(苦樂)을 함께한 후 헤어지게 될 때 저자들은 이별의 아쉬움을 한시로 토로하였다.

爲與吾君話 내 그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乘昏訪旅家 저녁 무렵 객점을 찾았네
又令孤宿我 또 나를 홀로 자게 하니
一倍別懷多 이별의 회포 배나 더 많아지네³⁵⁾

위는 송지행의 한시로 1791년 12월 17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1791년 11월 13일부터 1792년 4월 15일까지의 여행 때 송지행은 화옥(華玉)과 함께 상경을 한다. 이때의 일기에 수록된 한시 13수 중 타인의 한시 4수는 모두 화옥의 한시로, 송지행과 수창하여 지은 것이다. 험난한 겨울의 여정을 함께하고 한시를 지으며 마음을 나눴던 화옥과는 매우 애뜻하여, 11월 26일에 잠깐 길을 달리하게 되었을 때도 “그대는 청문을 향하고 나는 백문을 향하니 / 이별의 슬픔에 객지에서 헤어지기 어렵구나[君向靑門我白門, 別懷難作客中分.]”라고 슬픔을 한시로 표출하였다. 위의 경우 서울에 도착한 이후 머물면서 화옥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읊은 것이다.

화옥이 어떤 인물인지 찾지 못하였으나, 송지행 일기에 등장한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성은 박씨이고 송지행과 숙질(叔姪) 사이이며, 성균관 유생으로 보

35) 宋志行, 『西行錄』 卷2, 1791년 12월 17日.

인다.³⁶⁾ 서울에 도착한 이후 화옥은 성균관에 들어가고 송지행은 송간의 증시(贈諡) 관련 일을 보면서도 중간중간 화옥을 만나게 된다. 같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송지행도 알고 있을 것이지만, 힘든 여정을 함께 했던 정이 깊어 이별을 서글퍼하는 것이 한시 속에 잘 드러나 있다.

客地偶逢勝有期 객지에서 우연히 만나니 기약했던 것보다 기쁘네
維當重九菊花時 중앙절이라 누런 국화꽃마저 한창이네
月餘同苦猶餘愴 한 달 남짓 함께 고생하여 서운한 맘 사무치니
臨別還成惜別詩 이별에 임하여 다시 석별의 시를 읊노라³⁷⁾

위는 송석년의 한시로 1823년 10월 4일 일기에 수록되어 있다. 송석년은 1823년 8월 회일(晦日)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을 다녀오게 되는데, 9월 15일에 보성의 종인(宗人) 공서(公瑞)를 만나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동행하게 된다. 위는 공서와 헤어질 때 송지행이 읊은 한시로, 이에 공서가 차운하고, 다시 송지행이 다른 운으로 한시를 지어 “재삼 우두커니 서서 앞으로 가는 길 물어보고 / 강가로 고개를 돌리며 어서어서 가시라 하네[再三立立前頭問, 回首江頭早早云.]”라며 이별의 순간을 한시로 읊는다. 이에 또다시 공서가 차운하고, “그길로 작별하였는데, 천리 길을 함께 고생을 한 뒤라서 그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다.[仍與作別, 千里同苦之餘, 其懷難抑.]”라는 서술로 이별 상황은 마무리가 된다. 여행길의 고생을 함께한 사람이기에 이별을 더욱 애석해하는 심경이 한시 속에 담겨 있다.

송정악은 1749년 7월 5일, 일을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서울을 떠나려고 준비하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한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여행길의

36) 화옥은 1791년 11월 14일에 동행을 약속한 것으로 처음 등장하며 항상 ‘화옥’으로 일기에 기록된다. 그런데 1792년 3월 21일 일기에 ‘박화옥(朴華玉)’이라고 기재되어 성을 알 수 있으며, 1794년 1월 24일 일기에 ‘화옥 숙질(華玉 叔姪)’이라고 기재되어 송지행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성균관에 있는 화옥을 불러내거나 성균관에 가서 화옥을 만나는 것은 1792년 2월 13일, 1792년 3월 12일 등의 일기에 여러 차례 나온다.

37) 宋錫年, 『西行錄』 卷3, 1823년 10월 4일.

고난을 함께한 동행과 이별한 것은 아니지만, “떠돌다가 만나는 것 오래 할 수 없으니 / 헤어질 때면 눈물이 수건을 적시구나.[萍逢知未久, 分袂淚沾巾.]”라고 하여 여행 중 교유했던 사람과 이별할 때의 애석한 심정을 볼 수가 있다.

3) 여행길의 풍경과 유람

일을 보기 위한 여행이라도 새로운 풍경은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여행객들은 여행길에 보게 되는 풍경을 읊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는 길 인근의 명승을 찾아가 유람하면서 한시를 남기기도 한다.³⁸⁾ 누구보다 선조 현양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송정악도 밤에 배 위에서 백사장에 달빛이 비치는 풍경을 한시로 읊었다.³⁹⁾ 송지행은 서울에 머물던 중 금강산, 묘향산 유람길에 올라 유람지의 풍경을 읊은 한시를 다수 일기에 수록하였다.

西塞奇觀儘不窮 서쪽 변방 빼어난 경관 참으로 끝이 없어
安州又得百祥樓 안주에서 또 백상루의 풍광 얻었어라
晴川繞檻鳴濤漲 청천강은 난간을 휘감고 넘실넘실 흘러가고
香嶽臨軒積氣浮 묘향산은 난간에 임하여 자욱한 안개 떠 있네
爽豁不居浮碧下 부벽루 아래로 시원스레 툭 트여 거침이 없고
雄高剩占月波頭 월파루 끝은 웅장하고 드높음 독차지하였네
夙緣倘有江山否 전생 인연에 행여 이런 강산 있었던가
看盡吾東最勝區 우리 동방 최고의 명승지 맘껏 보았도다⁴⁰⁾

위는 송지행이 1792년 10월 15일 묘향산으로 향하는 길에 안주의 백상루(百祥樓)에 올라 읊은 한시이다. “먼동이 틀 무렵 길을 떠나 안주 읍내에 이르러

38) 비용 등의 문제로 먼 길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 선비들은 과거시험, 관직, 유배 등으로 인해 여행길에 오르게 될 때 인근 지역을 유람하는 일이 많았다. 예컨대 정치영은 “금강산 여행자들은 인근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 중 상당수는 인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나갈 일이 있을 때 여행을 결행하였다.”고 하였다.(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25쪽)

39) 1752년 5월 16일.

40) 宋志行, 『西行錄』 卷2, 1792년 10월 15일.

말에게 꼴을 먹이고 요기를 한 다음, 백상루에 올랐다. 백상루는 성의 서쪽에 서 청천강(淸川江)과 안주성 안의 천만 호 집들을 굽어보고 있으니, 참으로 빼어난 모습이었다. 마침내 읍시 한 수를 읊었다.[開東登程, 至安州邑內, 秣馬療飢, 遂上百祥樓。樓臨城西, 俯壓淸川江, 及城中千萬家, 儘勝區也。遂吟一律。]라고 서술한 후 그 빼어난 모습을 한시로 표현하였다. 백상루에서 본 청천강, 묘향산, 부벽루, 월파루의 풍경을 차례로 형상화한 후 ‘동방 최고의 명승지’라고 백상루를 평가하고 있다.

송정악은 여행 중 유람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한시를 남기지 않았다. 이에 반해 송지행은 금강산, 묘향산 유람 때 다수의 한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부여를 지날 때에 부소산(扶蘇山)을 유람하고 한시를 수록하고,⁴¹⁾ 서울에서도 봄날 꽃구경을 하고 한시를 수록하기도 하였다.⁴²⁾

여행 기간이 송정악, 송지행에 비해 짧았던 송석년은 시간을 내어 유람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별도로 유람을 하지 않더라도 여행길에서 보게 되는 새로운 풍경은 감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송석년은 여행길 곳곳의 풍경의 대해 한시를 지었으며, 일행들이 화답하여 짓는 경우도 많았다.

怪石頭頭在 기암괴석은 꼭대기마다 솟아있고
丹楓面面脂 단풍은 곳곳마다 붉게 물든 연지로다
緩筇看不厭 느긋하게 지팡이 짚고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아
不覺夕陽時 날이 저물어 가는 지도 몰랐어라⁴³⁾

위는 송석년이 1823년 9월 10일에 읊은 한시이다. 천안에 도착하기 전 차령(車嶺)을 넘으며 일행들과 수창하며 지은 한시 중 하나로, 기암괴석이 솟아 있고 붉은 단풍이 든 산의 풍경이 담겨 있다.

41) 1768년 1월 27일.

42) 1794년 3월 17일, 1794년 3월 22일, 1794년 3월 27일, 1794년 4월 3일.

43) 宋錫年, 『西行錄』 卷3, 1823년 9월 10일.

沙明水碧問津歸 맑은 모래 푸른 물 돌아가는 나루를 묻노니
 一帶朝霞兩岸飛 한 줄기 아침 안개 양편 언덕에 떠다니네
 滿目風烟收錦囊 눈 가득 멋진 경치 거두어 비단 주머니에 담노니
 箇中光景識人稀 이러한 광경을 아는 사람 드물도다⁴⁴⁾

위는 송석년(宋錫年)이 1828년 4월 18일에 읊은 한시이다. “일찍 출발하여 금강(錦江)을 건너며 절구 한 수를 읊었다.[早發越錦江, 吟一絕.]”라고 간략히 여정이 서술된 후 한시로 맑은 모래와 푸른 물, 아침 안개가 있는 금강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후 이에 차운한 일행 4명의 한시가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1828년 4월 여행을 기록한 일기에 수록된 38수의 한시는 모두 여행길의 풍경을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황민선은 제호 양경우의 기행시를 논하면서, “풍경이 대체로 기행을 하고 있는 화자의 수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⁴⁵⁾ 이에 반해 송석년은 바쁜 여행길에서도 인상적인 풍경을 보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더하여 날이 저문 지도 모르고 풍경을 보고, 이러한 광경 아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하는 등 풍경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송석년에게 풍경은 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행 중의 작은 즐거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여행의 주된 목적은 선조 현양을 위한 것이었다. 송정악은 임병양란 때 순절한 송대립과 송침 부자의 『충효록』 간행 및 묘비 건립을 위해 노력했고, 송지행은 입향조 송간의 증시(贈諡) 관련 일을 보았으며, 송석년은 송간의 행록인 『서재실기』 간행과 송간의 동학서원 배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이 죽보 간행 및 산송(山訟) 과정에 참여한 것도 확인할 수

44) 宋錫年, 『西行錄』 卷3, 1828년 4월 18日.

45) 황민선, 「제호 양경우 기행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67~92쪽.

있다. 여산 송씨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꾸준히 여행길에 오른 것으로,⁴⁶⁾ 이러한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는 한시에도 담겨 있다.

薄晚長洲雨意生 저물녘 기다란 물가에 비가 내리려고 하는데
田翁何事怯輕晴 늙은 농부 무슨 일로 잠깐 맑음을 두려워하는가
憂時大老希豐願 시절을 걱정하며 어진 노인은 풍년을 바라고
計日遐人念祖情 멀리 온 사람은 날을 헤아려 선조의 정 생각하네
清興休從詩上說 맑은 흥취는 시로 표현할 수는 없고
深懷難向句中評 깊은 회포는 시구를 보고서 평가하기 어렵네
陪遊幸得承顏近 다행히 모시고 놀며 가까이서 받드니
沙際玄禽送賀聲 물가의 제비들도 지저귀며 축하를 보내네⁴⁷⁾

위는 송정악의 한시로 1744년 5월 20일 일기에 수록된 것이다. 이재에게 글을 받기 위해 한천에 머무르던 때로, 전날 이재가 지은 한시에 송정악이 차운한 것이다. 전날인 5월 19일 일기에는 이재가 가마를 타고 천변에 가 제자들에게 시를 읊어주었다는 서술과 이재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5월 20일 일기에는 “선생께서 문인들에게 각자 어제 지은 시냇가의 시를 차운하여 올리라고 하니, 나도 손수 지은 졸렬한 시를 올렸다.[先生使門人等, 各書昨日所次川上韻以進, 故余亦手寫拙詩以進.]”라는 서술 후에 위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한시에서의 ‘어진 노인[大老]’은 이재로 생각되며 마지막에 가까이서 받드는 것을 제비들도 축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송정악이 이재를 만나러 왔던 것은 송대립과 송침에 대한 묘갈문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재가 미리 부탁 받은 글을 먼저 지은 뒤에 지어주겠다고 하여 계속 머무르며 강론에 참여하던

46) 이와 관련 박미선은 “조선시대 선조 현양의 문제는 가문·가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가문의 家格을 유지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지배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박미선, 『18세기 鄉班家の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174쪽)

47) 宋廷岳, 『西行錄』 卷1, 1744년 5월 20日.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악은 4구에서 날을 헤아리며 선조의 일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출하여,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744년 4월 20일에 이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던 송정악은 5월 10일에 한천에서 이재를 처음 만났고, 한 달 여가 지난 6월 20일에 이재가 글을 짓기 시작해 6월 23일에 받을 수 있었다.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를 담은 한시는 송지행의 일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송석년은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한시로 표출한다. 아래는 1831년 10월 1일에 수록된 송석년의 한시이다.

這事初冬啓遠程 이번 일로 초겨울에 먼 노정에 올랐으니
爲先深意在斯行 선조를 위한 깊은 뜻 이 행차에 달려있네
若非吾祖危忠實 우리 선조의 높은 충정과 참된 행실이 아니면
胡奈湖儒樂禮成 어떻게 호남의 유현이 예악을 이루었겠는가⁴⁸⁾

충청도 계룡산의 동학서원에 입향조 송간을 배향하고자 통문을 보냈고, 그 일을 알아보라고 문중에서 송석년을 동학서원에 보냈다. 문중에서 함께 보낸 윤경(允卿), 이찬(而贊)과 1831년 10월 1일에 여행길에 오르며, 위의 한시는 그 날 일기의 말미에 수록된 것이다. ‘선조를 위한 깊은 뜻[爲先深意]’이 바로 이 행차에 달려 있다고 여행의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선조의 충정과 행실이 호남 유현의 예악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담고 있다. 이후 1831년 10월 18일 일기에 수록된 일행 이찬의 한시에서도 “만약 우리 선조를 배향하면 / 영령이 저절로 돌아오리라[若配吾先祖, 英靈自越歸.]”라는 선조 현양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幸我同宗六七人 다행히 우리 일가붙이 예닐곱 사람이
聯節千里別親親 함께 천릿길을 가 조상을 극진히 섬기네

48) 宋錫年, 『西行錄』 卷3, 1831年 10月 1日.

時維九月黃花節 때는 9월 노란 국화 피는 시절로
紅葉粧山面面新 붉은 단풍으로 단장한 산이 면면이 새롭네⁴⁹⁾

위는 송석년의 한시로 1832년 윤9월 23일 일기에 수록된 것이다. 송석년은 1832년 윤9월 22일 죽보 간행 일을 보기 위해 서울로 출발하게 되며, “우리 중종의 죽보 일로 오후에 출발하였다. 정암(鼎岩) 주점에 이르러 무열(武說) 씨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열 씨가 와서 함께 유숙하였다.[以吾宗譜牒事, 午後發程. 抵鼎岩酒店, 留待武說氏矣. 不移時踵至, 仍與同留宿.]”라고 서술하였다. 이후 이튿날인 윤9월 23일에 위와 같은 한시를 읊어, 문중 사람 6~7명이 함께 선조 현양을 위해 여행길에 오름을 드러냈다. 서술에는 무열 씨 1명만이 기록되었으나, 한시를 통해 더 많은 일행이 함께 떠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살펴보면 여행 목적이 유람인 경우가 가장 많다.⁵⁰⁾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은 선조 현양을 목적으로 다양한 일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송정악, 송석년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한시를 수록하였다. 여정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 사람들과의 교유와 이별, 여행길의 풍경과 유람을 담은 한시에 비해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한시는 수적으로 적다. 하지만 기행일기인 『서행록』 속 여행 목적과 관련된 한시로, 『서행록』 소재 한시 중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3대의 기행일기 『서행록』 소재 한시의 현황을 살펴

49) 宋錫年, 『西行錄』 卷3, 1832年 閏9月 23日.

50) 이와 관련 김미선은 기행일기 1,279편을 살펴보고,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중 가장 많은 것은 유람(遊覽)으로, 전체 기행일기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154쪽)

고,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송정악은 17차례, 송지행은 9차례, 송석년은 10차례의 여행을 일기로 기록하였으며, 송정악의 일기 속에는 74수의 한시(송정악의 한시 40수, 타인의 한시 34수), 송지행의 일기 속에는 88수의 한시(송지행의 한시 65수, 타인의 한시 22수, 공동 창작 한시 1수), 송석년의 일기 속에는 134수의 한시(송석년의 한시 55수, 타인의 한시 79수)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본인의 한시뿐만 아니라 여행 중 보게 된 한시, 일행의 한시 등도 함께 일기에 수록하고 있었다.

『서행록』 소재 한시는 여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여정의 고난과 여행객의 수심이 담겨 있었다. 더위, 추위, 눈, 비 등 여행길에서 저자들은 여러 고난을 겪으며, 여정의 고난은 산문으로 자세히 서술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시 속에 집약되어 감정과 함께 표출되었다. 둘째, 여행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유와 이별이 담겨 있었다. 저자들은 여행 중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호의적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을 담은 한시를 읊기도 하고, 반대로 냉정한 사람에 대한 속상함을 한시로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행길의 고락(苦樂)을 함께한 일행과 헤어지게 될 때 이별의 아쉬움을 한시로 토로하였다. 셋째, 여행길에서 보게 된 풍경에 대한 묘사와 유람이 담겨 있었다. 선조 현양을 위한 여행이라도 새로운 풍경은 감회를 불러일으킨다. 저자들은 여행길에 보게 되는 풍경을 읊기도 하지만, 때로는 명승을 찾아가 유람하면서 한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넷째, 여행의 목적인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자들은 여산 송씨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여행길에 오른 것으로, 이러한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는 한시에도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행록』 소재 한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조선후기 여행객의 한시 창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일기 소재 한시의 특성상 『서행록』의 한시는 산문 서술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를 짓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시를 볼 수 있다. 비 오는 밤 홀로 숙소에서 한시를 짓고, 일행과 새로운 풍경을 만나 수창하며 한시를 지으며, 푸대

접한 사람에게 분노하여 한시를 짓는 등 조선후기 약 100년간 36차례의 여행 속에서 한시를 짓는 상황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후기 기행시를 발굴하고, 기행시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한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의 한시 전체를 망라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집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문인들의 한시가 전해지지 않고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 『서행록』의 저자인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도 문집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 『서행록』에 한시가 수록되어 있어 이들의 한시가 전해질 수 있었다. 더구나 일행의 한시도 함께 수록하여 다양한 사람의 한시가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 여행 중에 지은 한시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후기 기행시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행시는 여정 중의 고난과 이로 인한 수심,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유와 이별, 여행길에서 보게 된 풍경 묘사과 인근 지역에 대한 유람, 여행의 목적인 선조 현양에 대한 의지 등을 담아, 기행시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서행록』은 조선후기 3대가 약 100년간 36차례의 여행을 기록한 특별한 기행일기로, 양적으로도 풍부하여 학술적, 문학적 가치가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서행록』 소재 한시에 대한 첫 연구로서, 한시의 전반적인 현황과 내용적인 특징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선후기 다른 기행시와의 비교, 『서행록』 소재 타인의 한시에 대한 연구 등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본 연구가 부족하나마 『서행록』의 가치를 밝히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宋廷岳·宋志行·宋錫年, 『西行錄』

송정악·송지행·송석년 저, 송관중 역, 『서행록』, 원진문화사, 2008.

송정악 저, 나상필 외 역, 『서행록』 1,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0.

송정악·송지행 저, 조일형 외 역, 『서행록』 2,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1.

송지행·송석년 저, 김성희·문희숙 역, 『서행록』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2022.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jnu.ac.kr/>) 검색일 : 2022. 7. 11.

2. 논저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2019.

(DOI : 10.23016/klj.2019.71.71.151)

박미선, 「18세기 鄕班家の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9.

(DOI : 10.31929/namdo.2019.38.173)

——, 「조선 후기 紀行日記 『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2019.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황민선, 「제호 양경우 기행시의 현황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DOI : 10.15299/jk.2020.05.75.67)

| Abstract |

Overview and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Poems in 『Seohaengnok(西行錄)』

Kim, Mi-sun

Chonnam Univ. Lecturer

『Seohaengnok』 is a travel diary of a three-generation family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authors are Song Jeong-ak, Song Ji-haeng, and Song Seok-nyeon, who lived in Goheung, Jeollanam-do. 『Seohaengnok』 contains three different journeys for about 100 years from 1744 to 1839, featuring 296 Sino-Korean poems. This paper sought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Seohaengnok』 by identifying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poems in 『Seohaengnok』.

Song Jeong-ak wrote 17 trips in the diary, Song Ji-haeng 9 trips, and Song Seok-nyeon 10 trips. Song Jeong-ak's diary contains 74 Sino-Korean poems, of which 40 are Song Jeong-ak's Sino-Korean poems and 34 are others' Sino-Korean poems. Song Ji-haeng's diary contains 88 Sino-Korean poems, of which 65 are Song Ji-haeng's Sino-Korean poems and 23 are others' Sino-Korean poems. Song Seok-nyeon's diary contains 134 Sino-Korean poems, of which 55 are Song Seok-nyeon's Sino-Korean poems and 79 are others' Sino-Korean poems. The authors recorded in their diaries not only their own Sino-Korean poems, but also Sino-Korean poems that they encountered while traveling, and Sino-Korean poems of their companions.

The Sino-Korean poems from 『Seohaengnok』 were written during the travel process and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contains the hardships of the journey and the anxious heart of the travelers. Second, it contains the friendship and parting with people the authors met during the trips. Third, it contains descriptions of scenery and excursions seen along the way. Fourth, the purpose of the trips contains our forefathers' will to gain fame. Because the diaries contain these Sino-Korean poem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creation of Sino-Korean poems by travel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Seohaengnok』, and to explore various travel poems.

Key words : 『Seohaengnok』, travel diary, Sino-Korean poem, travel poem